

“민간·군공항 연계, 지역 갈등 심화 우려”

전남도·무안군 “지역 발전 종합 대책 우선”

활주로 연장·편의시설 확충 차질 없이 추진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공항 통합 시기를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 (제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키로 한 가운데 전남도는 26일 “결 국 지역 간 갈등을 심화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 결을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 항 통합을 연계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 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발전 대책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범 정부 협의체’에서 이전 지역 주민이 수용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 종합 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군수는 “민간공항 통합과 전혀 별개 인 군 공항 이전이 국방부도 아닌 국토 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계획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 은 사라지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만 키 운 잘못된 행정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의 이번 계획은 무 안군민을 아프게 찌르는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지만 군민은 매우 강하고 현명하 기 때문에 이를 잘 극복할 것”이라며 “군민들이 더 강력하게 군 공항 이전 저 지에 나설 것이며 무안국제공항활성화

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이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 도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력을 다할 계 획이다.

이에 따라 중장거리 국제노선 취항을 위한 활주로 연장과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한 관리동 신축, 주차장 확충, 여객 청사 리모델링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2025년 무안국제공

항 경유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 대중교통 연계망 구축으로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 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을 서 남권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기반·편의시설 확충에 최 선을 다하겠다”며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수 원 군공항 이전 사례처럼 획기적 지원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정·무안=최옥수 기자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시기를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겠다는 국토부 방침에 대해 전남도와 무안군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무안국제공항.

金지사, 타지역 접촉자 선제검사 등 특별 당부

모임·만남 자제, 마스크 쓰기 생활화 등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추석 이후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27일 타 지 역 접촉 및 증상 의심 시 선제검사를 받 고 되도록 모임을 자제하며 마스크 쓰기 생활화 등을 도민들에게 특별 당부했다. 최근 추석 연휴 여파로 전국적으로 하 루 확진자가 3천명을 넘어서고 있고 전남 에서도 추석 전 하루 평균 10명 안팎이었 던 것이 추석 후 20명 안팎으로 늘었다.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남지역에 선 1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

입 2명 (2%)과 감염경로 불분명 16명 (12 %)을 제외하면 모든 인원이 타 지역 관 련 확진자로 115명 (86%)이나 된다.

이 중 타 지역 거주 확진자는 38명, 타 지역 확진자가 도내 가족·지인에게 전 파한 경우는 33명, 타지역 확진자가 도 내 일반인과 접촉해 전파한 경우는 26 명, 타 지역에 방문해 감염된 도내 확진 자는 18명이다.

연령 별로는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 은 20~40대가 전체 확진자의 51%로 대

부분 접종을 완료한 50대 이상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지사는 이날 지역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도민 특별당부를 했다.

주요 당부 내용은 ▲타 지역을 방문했 거나 타 지역 거주자를 만난 경우 증상 이 없더라도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 사소에서 진단 검사 실시 ▲연휴 이후 확산세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가급적 모 임과 만남은 취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마 스크 착용 생활화 ▲본격적인 일상 복귀 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회식 등 공동 식사 자제 및 재택근무 및 비대면 회의

를 활용해 접촉 최소화 등이다.

또 학교 방역 모니터링·점검 강화, 주 말 종교시설 내 소모임·식사 자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 독려 등도 강 조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도 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한 덕분 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소중한 일상 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선제 검사와 예방접종 동참, 언제 어디 서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후성기자

광주시, 청년 부채 연체 해소 추가 지원

40명 선정…1대1 재무상담 후 1인당 80만원 지원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광주청년 금 융복지사업 (청년드림은행)을 통한 청 년 부채 연체 해소 지원대상자 40명을 추가 선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코로나19로 청년의 삶 실태 진단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 한 실태조사에서 지역 청년 29.9%의 부 채가 증가하고 제3금융권 및 대부업체 대출 경향이 11.6%로 나타나는 등 청년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드림은행’ 사업은 빚 등으로 고 민 중인 만 19~39세 광주 청년을 위한 부 채 해소 지원 사업으로, 1대1 재무상담 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 고 신용회복기관 동행 연계지원, 경제교 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드림은행 재무상담 후 내부심사를 통해 40명을 선정하고 1인 당 80만원을 분할 지원한다. 지난달까지 광주 부채청년 150명에게 연체해소 지 원금을 지급했다.

자세한 상담은 청년드림은행 홈페이지 또는 전화 (062-521-2567)로 문의하 면 된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는 물론 장기연체 등으로 고단한 청년들에게 이번 추가 지원은 부 채를 해소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 드림은행 금융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채 무도 예방하고 삶을 재설계해보길 바란 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전남 고속도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연장

백양사휴게소 등 10곳 10월 말까지…13명 조기 발견

전남지역 고속도로에 설치된 임시선 별검사소가 10월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전남도는 26일 “추석 연휴 여파로 확 진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9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백양사·섬진강 ·보성녹차·함평천지 고속도로 휴게소 와 순천팔마체육관, 영광버스터미널, 불 갑사, 영암한마음회관, 남악복합주민센 터, 나주빛가람동 주민센터 등 총 10곳 의 임시선별검사소를 10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지 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4만6천392명 을 검사해 확진자 13명을 조기 발견했 다. 지역 내 감염 유입을 막는 방역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추석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 라 적극적인 선제 검사를 계속 권고하고 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친척·지 인 등을 접촉했거나 연휴 중 타지역을 방문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 를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임시선별검사 소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운영시간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전국적으 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남에 서도 확산세가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직 장 동료 등 소중한 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 검사를 받길 바란 다”고 당부했다. /임후성기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인문학 산책’ 강좌

10월8일-29일, 매주 금요일 총 4회 비대면 운영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26일 구한말 부터 근대까지 격동기 호남의 역사와 인물을 조명하는 ‘인문학 산책’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격동기 호남의 역사를 빛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박물관 유 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10월8일부터 29 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4회 진행한다.

첫 강좌는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이 임진왜란 때 광랑미 보급을 위해 애쓴 광 주 출신의 박광욱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호남의 의인들을 소개한다.

오는 10월15일에는 이견상 전 전남일보 편집국장이 ▲안동의 이육사 ▲광주

의 정윤성 ▲담양의 김일근 등 무정부주의 항일운동단체인 의열단 단원들에 초 점을 맞춰 영호남 독립운동을 새롭게 조 명한다.

이어, 10월22일에는 황광우 작가가 광 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 장재성 등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사회주의 행적으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인물들을 다룬다.

10월29일 마지막 강좌에서는 광주예술 고등학교 신봉수 교사가 일제의 의병진압 작전인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 당시 광주 일원에서 벌어진 전투 등 한말의병전쟁의 감춰진 비화를 들려준다. /오송지기자

광주시, 가을철 도로 일제 정비 실시

파손부위,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광주시는 내달 6일까지 안전하고 깨끗 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가을철 도로 일 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시 종합건설본부와 각 구 청 등 도로관리청 별로 자체 점검 방식 으로 진행된다. 총 점검 구간은 7천495 개 노선, 1천721km다.

정비 내용은 ▲하절기 도로포장 파손

부위 및 노면 요철 ▲교량 및 터널 등 주 요 시설물의 기능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와 배수시설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기준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 ▲도로시 설물 청결상태 유지 및 동절기 도로 제 설대책 수립 등이다.

시는 또 사업비 4억원을 확보, 강설·결빙에 따른 교통 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5개 구청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겨울철 설해 대책에도 만전 을 기할 방침이다.

이주성 시 도로과장은 “효율적인 도 로정비를 위해 도로포장의 파손 등 불합 리한 도로시설물을 발견하면 해당 도로 관리청에 즉시 제보 해달라”고 당부했 다. /이종행기자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픈 상담 ◀



절차적 편의

법적자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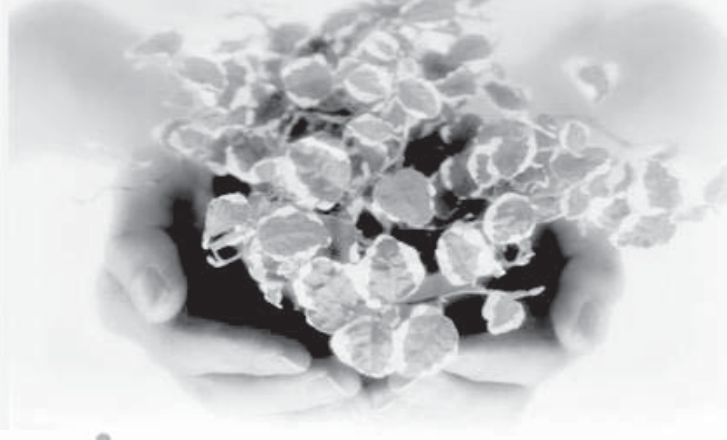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